

전남 인구감소지역 2분기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4.3배

16개 시·군...담양 8.1배·구례 6.2배·곡성 5.4배·장성 5.4배 순 재방문·카드 사용액 전국 평균 상회...전남도 '생활인구 유입' 박차

전남지역 소재 16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4.3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비롯해 월 1회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한 체류인구로 구성된다. 지난 1분기 다양한 남도 꽃 축제들의 영향으로

전남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구례(18.4배·전국 1위), 담양(7.1배·전국 10위) 등 전남지역 체류인구가 대폭 증가했던 반면, 2분기에는 체류인구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소재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의 생활인구는 지난 6월 기준 370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가 300만2000명,

등록인구는 70만1000명이다. 전남 인구감소지역은 구례·담양·곡성·영광·화순·보성·고흥·장흥·강진·함평·영암·해남·장성·완도·진도·신안 등이다. 전남 체류인구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담양이 8.1배로 가장 높았고, 구례(6.2배), 곡성(5.4배), 장성(5.4배), 보성(5.2배) 등은 전국 평균 4.8배보다 높았다. 이 밖에도 전남은 재방문을 등 5개 특성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남지역 재방문을 37.3%로 전국 평균(34.7%) 대비 2.6%포인트(p) 높았고, 평균 숙박일수도 전국 평균보다 0.4일 긴 3.8일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지역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이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평균 체류일수가 3.3일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11월 중 체류인구가 지역 활력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남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은 전남이 29.7%로 전국 7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남(31.2%), 전북(31.8%), 경북(33.7%), 충북(35.4%) 순으로 낮았다. 숙박형 체류인구는 당일 야간(오후7시~자정)에 해당지역에

체류하고, 다음날 심야(자정~오전7시)에도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뜻한다. 전남이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은 타지에서 숙박을 목적으로 전남을 방문한 인구보다는 당일치기 여행 또는 인근 지역으로의 출·퇴근 목적의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사(SK·KT·LG U+), 카드 4사(신한·BC·삼성·하나), 신용정보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한 결과다. 통계청은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 규모, 인구감소지역 활동 특성, 소비 특성 등을 분석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경기침체 장기화...소비·건설 수주액 모두 감소

호남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광주·전남지역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진으로 건설수주액 역시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3.4로 전년 동월(109.0) 대비 5.2% 감소했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가 3달째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고물가 장기화로 식자

재, 생활용품 등의 소비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중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99.9로 전년 동월보다 9.0% 감소했고,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1.6% 하락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이 10.4%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화장품(-9.6%), 신발·가방(-9.6%), 의복(-5.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6.6으로 1년 전(107.4)보다 10.1%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가전제품(21.4%), 오락·취미·경기용품(20.2%) 등은 매출이 늘었지만, 신발·가방(-22.9%), 음식료품(-12.8%), 의복(-13.5%), 기

타상품(-9.6%), 화장품(-7.2%) 등의 매출은 감소했다. 광주·전남 건설수주액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지난 9월 기준 350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 2348억원) 대비 97.1%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 건설수주액도 2134억원에서 690억원으로 67.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광주·전남 모두 생산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재고는 15.5% 늘었지만, 출하가 9.5% 감소한 영향이다. 전남 광공업 생산은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윤영 기자 zzang@



기아, 다섯 쌍둥이 가정에 9인승 카니발 선물

동두천시에 3000만원 성금도

기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 임신을 통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31)·사공혜란(30)씨 부부에게 'The 2025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선물했다. <사진> 기아는 지난달 30일 경기 동두천시청에서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준영·사공혜란 부부가 자리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동두천시에 사는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자연 임신으로 임태된 남자 아이 3명과 여자 아이 2명이 지난달 20일 태어났다. 기아는 아울러 경기북부 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3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동두천시에 전달했다.

성금은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를 비롯해 동두천시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차량 관련 물품 및 육아용품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원정 기아 부사장은 "다섯 생명의 탄생이라는 큰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카니발을 선물하게 됐다"며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춘 카니발이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공혜란씨는 "카니발 9인승을 선물 받아 다섯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며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뒷자리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카니발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직원 기지로 96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또 막았다

광주 동부경찰서 감사장 받아 올들어 129건 43억원 피해 예방

광주은행은 31일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액을 신고,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해 광주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달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당일 입금받은 9600만원을 즉시 현금과 고객 수표로 나눠 인출을 요청하고, 전날 역시 서울 강남에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점을 수상히 여겨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따라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 인출시 경찰 출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경찰 출동으로 인한 현금 인출 지연에 대해 사업상 손해를 주장하고, 광주은행에 급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은행 수신담당 책임자는 경찰에 해당 고객을 신고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자 발생 예방에 기여한 광주은행 측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선우영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은 "금융사기 수법이 기술 발전에 따라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24x365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

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최신 사기 수법 및 예방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들어 총 129건, 43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신관 새이름 'PLAY SPOT'

20여개 매장 리뉴얼 오픈

11월 한달 간 다양한 이벤트

광주신세계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신관 지하 1층의 이름을 'PLAY SPOT(플레이 스폿)'으로 확정(사진)하고,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레이 스폿'은 광주신세계 신관이 추구하는 'New, Young, Trendy'를 반영해,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마련한 MZ들의 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신세계는 이를 위해 플레이 스폿에 20여개의 매장을 리뉴얼 오픈하고, MZ세대부터 가족 고객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신세계는 플레이 스폿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한달 간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플레이 스폿 내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금액이 합산 20~40만원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발리워드 1만5000~3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이와 함께 11월 2~3일에는 '시코르' 매장 앞에



서 '럭키 랜덤 캡슐 뽑기' 이벤트를 통해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1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플레이 스폿 내 브랜드에서 구매 금액이 합산 7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마우스 패드를 증정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16일에는 플레이 스폿 내 입점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플레이 게릴라 패션쇼'를 선보인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플레이 스폿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만큼, 영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

AI기반 여장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의견 수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9일 완도군과 함께 'AI(인공지능) 기반 여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AI기반 여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양식 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상황 완충을 목적으로 2028년까지 5개년 간 추진되고 있다. 모두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김·전북 양식 주산지 5개 지자체(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등),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진흥원은 수산양식 어민 20여 명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들어 향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AI기반 여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추진내용 설명 ▲여장공간정보 데이터 관측 최적 점 및 조사 항목 추천 ▲완도군 전복 양식어장 관리 및 운영 시 예외사항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T 홍문표 사장 미래가치공헌기관 부문 대상

'미래가치리더 대상' 시상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사진) 사장이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미래가치리더대상' 시상식에서 'K-푸드 세계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가치공헌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홍 사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단기간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여 ▲수출을 통한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 비전 제시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해외 출장으로 시상식에 불참한 홍 사장은 기노선 aT 부사장을 통해 "이번 수상은 모든 농·어민과 축산인, aT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판로 확장 및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대구상의, 동서경제교류협의회 성료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 제11차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양 상공회의소의 회장단과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는 양 상의가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광주·대구의 경제를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나,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상호 성장·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며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에도 더욱 힘써 나가자"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6.15 (-37.64)
↑ 코스닥	743.06 (+4.87)
↓ 금리(국고채 3년)	2.936 (-0.001)
↓ 환율(USD)	1377.00 (-5.40)